■ 고사성어 ㉑

안중지정(眼中之釘)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 : 010-5483-7511
E-mail:ykkss77@naver.com
-약 력-
•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 250회
• 대한민국 미협국전 문인화부문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미협국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영남예술협회 이사장
•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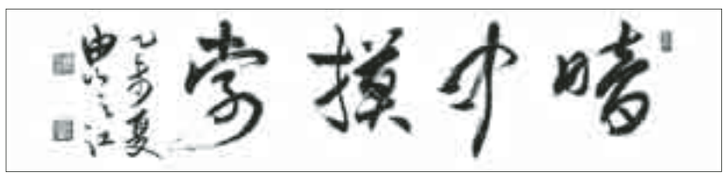
눈에 박힌 못이라는 뜻. 곧 ①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비유. ②몹시 싫거나 미워서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눈엣가시)의 비유.

조재례(趙在禮)라는 악명 높은 탐관오리가 있었다. 그는 당나라말, 혼란기에 하북절도사(河北節度使) 유인공(劉仁恭)의 수하 무장이었으나 토색(討索)질한 재물을 고관대작들에게 상납, 출세길에 오른 뒤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의 세 왕조에 걸쳐 각지의 절도사를 역임했다.

송주(宋州 : 하남성 내)에서도 백성들로부터 한껏 착취한 조재례가 영흥(永興) 절도사로 영전, 전임하게 되자 송주의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놈이 떠나가게 되었다니 이젠 살았다. 마치 '눈에 박힌 못[眼中之釘]이 빠진 것 같군."

이 말이 전해지자 화가 난 조재례는 보복을 하기 위해 1년만 더 유임시켜 줄 것을 조정에 청원했다. 청원이 수용되자 그는 즉시 '못빼기 돈[拔釘錢(발정전)]'이라 일컫코 1000푼씩 납부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미납자는 가차없이 투옥하거나 태형에 처했다. 이처럼 악랄한 수법으로 착취한 돈이 1년간에 자그마치 100만 관(貫)이 넘었다고한다.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어림짐작으로 찾는다(혹은 추측한다)는 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 (女帝)였던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690-705) 때 허경종(許敬宗)이란 학자가 있었다.

그는 경망한데다가 방금 만났던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허경종의 건망증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이름 없는 사람이야 기억할 수 없겠지만 만약 하안 (何晏)이나 유정 (劉植)·심약(沈約)·사령운(謝靈運) 같은 유명인을 만난다면 '암중 모색'을 해서라도 알 수 있을 것이네."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친[良禽擇木]고 했다.

마찬가지로 신하가 되려면 마땅히 훌륭한 군주를 가려서 섬겨야 하느니라."

이 말을 전해 들은 공문자는 황급히 객사로 달려와 공자의 귀국을 만류했다.

"나는 결코 딴 뜻이 있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오. 다만 위나라의 대사에 대해 물어 보고 싶었을 뿐이니 언짢게 생각 말고 좀더 머물도록 하시오."

공자는 기분이 풀리어 위나라에 머물려고 했으나 때마침 노(魯)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귀국을 간청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난 지 오래인 공자는 노구(老軀)에 스미는 고향 생각에 사로잡혀 서둘러 노나라로 돌아갔다.

乙未年光復節感懷(을미년광복절감회)

光復於焉七十年 (광복어언칠십년)
招涼三伏立秋天 (초량삼복입추천)
國民所得最貧國 (국민소득최빈국)
奇蹟生成傲慢然 (기적생성오만연)
統一意思應定立 (통일의사응정립)
兩分疆土更精硏 (양분강토갱정연)
旅程偉大新跳躍 (여정위대신도약)
癒着政經皆變遷 (유착정경개변천)
乙未年 晩夏 (을미년 만하)

※ 光復70年 主題語 '偉大한 旅程, 새로운 跳躍'
光復70年記念事業會推進委員會指定

을미년 광복절을 생각함

광복된 지 어느덧 칠십년이 되었는데
삼복더위에 서늘함 부르는 입추 시절이라
국민소득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 이루었다고 교만 해졌나
통일의 의지 마땅히 바로 세우고
양분된 이 강토 다시 깊이 연구하여
위대한 앞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유착된 정치경제계 모두 고치고 바꾸자
2015년 늦여름

<安東權氏樞密公派 有懷堂公後孫 36世 善漢 合掌>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연령이야기

일반적으로 연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 연령(滿年齡)이고 다른 하나는 세는 나이이다. 일본·중국·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만 연령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달력나이 즉 출생한 해를 한 살로 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았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않다.

옛부터 연령에 관한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吾, 十有五而干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논어' 위정[爲政]편에서)]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고,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40세가 되어서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고, 50세가 되어서 천명(天命)을 알게 되었고 60세가 되어서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게 되었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씀 때문에 후세에서는 지학(志學)을 15세, 이립(而立)은 30세, 불혹(不惑)은 40세, 지명(知命)은 50세, 이순(耳順)은 60세, 종심(從心)은 70세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공자가 72세에 타계하였다고 하니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자는 과거 세월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인생 전개과정을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공자의 일생을 살피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인생을 그린 공자는 역시 대단한 분이라고 아니할 할 수 없다.

연령에 관한 호칭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60세를 환갑(還甲)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일본에서는 환력(還曆)이라고 한다. 환갑이나 환력이나 60세가 되면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를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다. 십간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윗부분을 이루는 열개의 천간(天干) 즉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를 말하며, 십이지는 육십갑자의 아랫부분을 이루는 12개의 지지(地支)인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를 말한다. 육십갑자란 민속에서 십간과 십이지를 순차로 배합하여 육십 가지로 배열한 순서를 말한다. '갑자(甲子)'에서 시작하여 '계해(癸亥)'에서 끝난다. 줄여서 '육갑'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환갑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만 연령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갑 이외의 호칭의 경우에는 달력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인들은 신조어를 잘 만들어내는데 연령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오늘날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호칭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용된다. 중국에서 온 호칭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희(古稀)이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의 시 '人生七十古來稀' 에 연유한 것인데 당시에는 수명이 짧아 70세는 대단히 희귀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다음에 가끔 사용되는 호칭을 몇 가지 소개한다. 대부분은 일본에서 만든 것들이다.

희수(喜壽:): '喜' 의 초체(草體)가 77과 비슷한 데에 연유하며 77세를 말한다.

산수(傘壽:) '傘'의 약자가 八十이어서 80세를 말한다.

미수(米壽)글 '米 자가 八,十,八로 분해되는 까닭에 88세를 말한다.

졸수(卒壽): '卒'자의 초서체(草書體)는 九와 十을 위아래로 묶은 형태의 글자이다. 즉 90이다. 졸수는 인생을 졸업하는 연령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또한, 구수(鳩壽)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일본식 발음이 규쥬(90)이기 때문이다.

백수(白壽: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되는 까닭에 99세를 말한다.

기이(期頤): 백살의 나이를 말한다. 기이지수(期頤之壽)라고도 한다. 나는 '기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작곡가 김성태(金聖泰)선생께서 2009년에 백세(百歲)를 맞이하시어 송사(頌辭)를 쓰게 되었을 때 '기이지수' 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期)'자가 100년을 말한다는 것, '이(頤)'자가 "봉양한다, 바친다'는 뜻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우강에세이 5집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신광출판사, 2010년, P. 244참조). 웬일인지 백수(百壽)라는 호칭은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수(茶壽: 108세를 말한다. 다(茶)자의 초두머리(艸)를 20, 그 밑부분을 '米(88)'로 보고 합산하면 108이 된다.

황수(皇壽): 111세를 말한다. '皇'자를 白(99), 一, 十, 一로 분해해서 합산하면 111이 된다.

문득 학술원장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이 에피소드는 가끔 회상될 만큼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담의 하나이다. 학술원에는 인문사회과학부·자연과학부 2부가 있고 인문사회부에 6개 분과, 자연부에 5개 분과가 있다. 나는 자연 4분과(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에 속하고 있다. 회장·부회장 밑에 2인의 과학부회장 11개 분과의 회장이 있어서 이들로 임원회의가 구성된다. 학술원에서는 모든 부서의 장이 회장으로 불리우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사전에 임원회의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한 번은 '상조회' 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고희·미수·백수 등을 맞이하는 회원에게는 일정액의 축하금을 기증하자는 내용이다.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총회로 회부되었다. 관행대로 아무 토의 없이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았던 이 의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팔순·구순·백수 등 잘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왜 하필 외국말로 되어 있는 명칭을 쓰려고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어 결국 '팔순·구순·백수'로 낙착되었다. 생각해볼수록 부끄럽기만 한 추억이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⑱

무궁화

▣ 靑南 權寧漢(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몇 해 전까지 공휴일이었던 한글날이 평일이 된 데 대해 무척 섭섭함을 느낍니다.

전 세계에는 약 300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으나, 고유한 문자는 불과 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자 중에도 우리 한글은 어느 나라 문자보다도 더욱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입니다. 몇 가지 그 우수성을 지적하면, 한글에는 발음이 되지 않는 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도 또한 없습니다.

영어나 독어, 프랑스어에는 발음이 되지 않는 문자가 단어 속에 많이 들어 있어서 영어를 배울 때 무척 곤란을 겪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에는 쇠금자(金)를 예로 들어 봐도, 금이라고도 읽을 경우가 있는가 하면 김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즉, 두세 가지로 발음됩니다. 그러나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이라도 표기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한글로는 전세계 모든 인류의 말을 모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있어도 글이 없으면 말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형용사가 어느 나라 말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우리 글을 없애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던 1920년, '가갸의 날'이라고 시작된 이 한글날이 단순히 10월에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데 대해서 무척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여 년이나 되니 100년에 하루씩 기념일을 정한다고 해도 일 년에 50일쯤의 기념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 민족의 긍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토요일도 휴일로 하고 있는데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 국기가 있는 것처럼 나라꽃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은 법령으로 정하는 수도 있으나, 대부분 그 나라의 풍토, 역사, 문화와 관련 있는 꽃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국화는 옛날부터 모란이었으나 1929년 법령으로 매화로 정한 것은 법으로 국화를 정한 그 예입니다.

국화가 자연스럽게 정해진 예로서는, 영국 황실의 문장이 장미였는데 영국 사람들도 장미를 좋아하니 장미가 자연스럽게 영국의 국화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각 주마다 주화가 있어서 통일된 국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주화도 때에 따라서는 바뀌기도 한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 엉겅퀴는 가시가 많은 보잘것없는 잡초인데, 이 꽃이 국화로 정해진 것은 옛날 덴마크의 해적들이 스코틀랜드로 쳐들어와서 싸움을 벌일 때, 몰래 침입한 바이킹들이 엉겅퀴 가시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모두 피난하고, 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전설에서, 고마운 이 꽃을 국화로 정했다고 합니다.

꽃을 국화로 정해서 쓰기 시작한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꽃을 왕실의 문장으로 또는 훈장의 도안이나 화폐의 도안으로 사용하게 된 때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원산지는 인도, 중국 또는 동부 아시아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여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완전히 우리 꽃으로 동화되어버려서 지금은 원산지 등을 따질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 통치하던 시절에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나라꽃, 민족의 꽃으로 아끼게 되었고, 국기처럼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1945년에 국권이 회복되고 국기가 제정되고 국가가 재정될 때 자연스럽게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정하였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의 도안으로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무궁화가 우직나라의 국화라는 이유로 한때 전국의 무궁화를 뽑아버리기도 하였는데, 한 나라의 국화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처럼 피해를 받은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런 유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제의 악랄한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요사이 너무나 범람하는 일본 상품과 일본 문화에 깊이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욱과에 속하는 이 낙엽 관목인 무궁화는 그 꽃이 오래 피기로도 기록적입니다. 6월 하순경부터 피기 시작한 무궁화 꽃은 10월까지도 한결같이 잘 핍니다. 그렇게 오래 피는 꽃이지만, 꽃 한송이 한송이는 아침 해가 뜰 때 피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벌써 시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시들어버리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화 없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은 영고무상(榮枯無常)한 인생의 원리를 보여 주는 동시에 자강불식(自彊不息)하는 군자의 기상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나 아무래도 흰색 무궁화가 우리 백의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농대 화훼연구실에서는 약 100가지 정도의 무궁화 개량품종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무궁화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꽃으로 사랑받아야 할 무궁화를 집안에 심기 꺼려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무궁화에는 진딧물이 너무 많이 달라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보급되는 개량 품종은 진딧물에도 강하고 꽃도 아름다우니 그런 점은 안심하고 심을 장소만 있으면 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궁화는 번식력도 강하고 왕성해서 4-5월에 약 30센티 가량 가지를 잘라서 꺾꽂이하면 아무데서나 발근이 잘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해도 멸종되지 않는 것은 그 강한 생명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0일 이상이나 피는 이 꽃이 매일 나무가 꽉 차도록 꽃으로 덮이니, 하루에도 수백 송이의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년 동안에 수만 개의 꽃이 피는 가장 정열적이고 생명력이 왕성한 꽃입니다. 대부분의 꽃과 마찬가지로 무궁화에도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꽃에 얽혀 있는 많은 전설들이 대부분 슬픈 전설인 것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슬픈 것과도 통한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고을에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천하일색인 한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장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마음이 무엇보다도 강하므로 주위의 어떤 꾐에도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성주는 이 여자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여러 번 꾀어 봤으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부하들을 보내서 강제로 납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쪽 같은 그 여자는 죽기를 결심하고 성주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성주는 그만 그 여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죽기 전 자기가 죽거든 자기의 시체를 자기집 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엾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유언대로 그녀의 시체를 집 뜰에 묻어 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 그 집을 빙 둘러 싸버렸습니다.

마치 눈먼 남편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빙 둘러 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번리화(藩離花), 즉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고 또 꽃 속이 한결같이 붉은 것은 부인의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법에는, 단순히 그 사물의 외형만을 보는 방법과 마음의 눈으로 그 내면을 꿰뚫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湖然 權宗鉉씨

'마음' 冊 發刊

湖然 權宗鉉씨(86·합천, 35世, 복야공파)가 도서 출판 대보사刊으로 지난 5월 30일 '마음' 冊을 발간했다.

湖然 權宗鉉회장이 사람의 인성(人性), 근본(根本), 배려(配慮), 본심(本心), 심정(心情), 의지(依支), 마음의 자산, 일체유심조, 마음이 없으면 일이 없고 '마음이 통하면 태산도 움직인다' 마음에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허무할 뿐이다. 마음에 있으면 자기 감성을 알고 마음에 없으면 한일이 없다.

사람사는 세상 인성(人性)은 마음가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격 형성의 기본이다. 마음을 가다듬어 천리와 순리에 따른 인성의 아름다운 길이 주위 후대에 열려지기를 절실히 추구(희구)하면서 '마음' 冊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언 86여년간의 "人生 파노라마" 生(삶)을 일목요연하게 흔적을 묶어, 人生의 나침판(지침)으서, 회고록 "마음"을 펴냈으니, 다소나마 안동권문의 혈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월소 윤태희 서예가 특선 입상

(사)한국서화작가협회 주최 지난 7월3일 제32회 대한민국 서화예술대전에 윤태희 서예가(74, 파평윤씨, 권태강검교공파종회장 부인) 작품을 출품해, 추사체 특선과 입선을 했다. 또한 제21회 대한민국서도대전 지난 7월15일 추사체(작품명 방명만리)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다.

한편, 월소 윤 서예가는 지난 2012년 (사)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서예공모대전과 추사체 서예전에서 작가인정 자격규정에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였기에 초대작가 자격을 인정받아 작가인정패를 받았다. 그리고 윤 초대작가는 천부적인 서체 소질로 태어나 그동안 3체장은 한석봉씨와 추사체는 오선영씨로부터 사사받아 2012년 1월10일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주최 삼체장(전서, 예서, 해서)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으며, 또한 2012년 8월, 226주년 추사체 서예대전에서 추사체 특선과 3체장 패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월소 윤태희 초대작가는 서예부문 공모전 출품작의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받아 앞으로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